

李羲天論 — 18세기 후반 老論清流 지식인의 운명

鄭吉秀*

-
- | | |
|------------------------|--------------------|
| I. 머리말 | IV. 古文 수업과 野譚에의 관심 |
| II. 『明紀輯略』 사건과 이희천의 죽음 | V. 맺음말 |
| III. 당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 |
-

I. 머리말

李羲天(1738~1771)은 老論 명문가의 사대부로서, 『明紀輯略』이라는 禁書를 소장하였다는 죄목으로 불과 34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고 만 비운의 인물이다. 李羲天의 字는 士春, 號는 萬石子·石樓이며 本貫은 韓山으로, 丹陵 李胤永(1714~1759)의 장남이다. 부친 李胤永이 과거에 응하지 않고 李麟祥·吳瓚을 비롯한 당대의 名家들과 文會를 만들어 교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희천 역시 布衣로서 燕巖 朴趾源(1737~1805)을 비롯한 소수의 벗들과 교유하며 학문을 쌓고 詩文을 지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희천은 젊은 시절의 연암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유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동안 그에 값할 만한 주목은 받지 못해 왔다.¹⁾ 다행히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이희천의 문집인 『石樓遺稿』 2권 2책이 남아 있어 이희천의 대체적인 생애와 문학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현전 유일본이 아닌가 생각되는 『石樓遺稿』에는 아쉽게도 序跋이나 刊記가 남아 있지 않아 문집의 간행자와 간행연대를 전혀 알 수 없고, 이희천의 行狀도 달리 전하는 것이 없어 그 생애의 전모를 밝히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석루유고』에는 그동안 잘

* 필자: 규장각 조교

1) 金明昊, 「朴趾源과 俞漢雋」(『韓國學報』44, 1986가을), 47면에서 20세 무렵 연암이 교유했던 인물 중 하나로 李羲天이 거론된 바 있고, 金允朝, 「燕巖의 〈李夢直哀辭〉에 대하여」(『漢文教育研究』4, 漢文教育研究會, 1990)에서 이희천에 관한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좀더 자세히 다루었다. 金允朝 교수는 朴宗采의 『過庭錄』에 꼼꼼한 주석 작업을 하면서 이희천의 「和白麓詩序」와 「與朴美仲趾源書」原文을 '연암 관계 자료'로 책 뒤에 제시하기도 하였다(『역주 과정록』, 대학사, 1997). 본고의 작성에 두 분의 선행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18세기 중반 여러 문인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드러내주는 자료가 여럿 존재하며, 여기에 실린 이희천 자신의 詩文 역시 고독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투영된 작품이 대부분이라 일정한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남긴 관련 기록 및 그 밖의 사료들을 참조하는 가운데 『석루유고』의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이희천의 삶과 문학을 조명해 보려 한다.

II. 『明紀輯略』 사건과 이희천의 죽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희천은 禁書를 구입하여 소장했다는 죄목으로 34세의 한창 나이에 처형을 당하였다. 이희천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문제의 책은 淸나라 康熙 年間の 太學士 朱璘이 1696년(肅宗 22)에 지은 역사서 『明紀輯略』으로, 이 책에 朝鮮의 歷代 임금을 모독한 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진노한 英祖에 의해 소장자와 매매 관계자들이 극형에 처해진 바 있다.²⁾

사건의 발단은 英祖 47년(1771) 5월 20일에 올린 朴弼淳의 상소에 있었다. 박필순은 燕京에서 들어온 『綱鑑會纂』³⁾을 전달 우연히 보았는데 이 책에 先王들을 모독하는 괴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비록 正史는 아니지만 淸나라의 太學士가 짓고 禮部尙書가 서문을 쓴 역사서인만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튿날 영조는 조정 대신들을 소집한 자리에

-
- 2) 『朝鮮王朝實錄』에는 太祖의 宗系 및 世宗의 사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이 蔡濟恭의 奏文에 적혀 있을 따름이어서(『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7일조) 구체적으로 『明紀輯略』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太祖의 宗系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太祖 李成桂가 麗末의 權臣 李仁任의 아들로 기술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조선 초부터 거듭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太宗實錄』 태종 4년 3월 27일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湛軒 洪大容(1731~1783)의 「明紀輯略辨說」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杭州 선비 潘庭筠에게 보낸 편지에 덧붙인 이 글에서 홍대용은 1년 전 燕京에서 『明紀輯略』의 일부를 구해와서 읽어 보았더니 이 책에 기록된 朝鮮 관련 기사에 오류가 매우 많더라면서 그 몇 가지 실례를 들고 있다. 「明紀輯略辨說」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仁祖反正 관련 기사이다. 우선 “朝鮮國王 李璉[光海君-인용자]이 그 조카 李某[仁祖]에게 찬탈당했다”(天啓癸亥五月條, 朝鮮國王李璉, 爲其侄李諱所篡云云, 『湛軒書』 外集 卷1 杭傳尺牘, 장15앞)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 仁祖가 西宮에 유폐되어 있던 仁穆大妃와 밀약하여 3월 9일 궁중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끈다는 구실로 궁중에 들어가 왕위를 찬탈하였다고도 했다(같은 글, 장16뒤). 결국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仁祖反正를 弒逆과 篡奪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明紀輯略』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다. 홍대용은 1765년(영조 41) 11월부터 석 달 동안 여행길에 올랐던바, 『明紀輯略』이 문제의 禁書로 부각되기 6년 전에 이미 이 책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 3) 『綱鑑』이란 본디 明清代의 학자들이 朱熹의 『通鑑綱目』을 본따 편집한 역사서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당시 조선의 사대부가에는 『綱鑑會纂』·『鳳洲綱鑑』 등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綱鑑會纂』은 朱璘의 『明紀輯略』을 가리킨다.

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明紀輯略』의 목판과 서적을 불태우고 朱璘을 처벌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이에 앞서 20여년 전 청나라에서 책을 구입해왔던 세 사신을 梏棘할 것을 명하였다.⁴⁾

5월 22일 『明紀輯略』에 圖畧가 찍혀 있던 徐宗璧(1696~1751)의 관작이 追奪되었고, 『明紀輯略』을 소장한 자들로서 당일내에 자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겠노라는 영이 거듭 내렸다. 24일에는 자수한 10여 명 중 俞漢吉·李恒健 등 4인을 親鞫하여 楸子島 등으로 귀양보냈고, 책을 들여온 역관들은 모두 海島의 官奴로 삼게 했다. 冊僮들을 대상으로 계속 推問한 결과 冊僮 裴景度が 잡혀들면서 곧이어 배경도에게 책을 구입했던 이희천이 체포되어 5월 26일 영조의 親鞫을 받게 된다. 이희천은 “『明紀輯略』을 구입한 바 있긴 하나, 박필순의 상소 내용을 대략 들은 뒤에 즉시 불살랐다”고 대답하였지만, “망측한 책을 서로 사고 팔았다”는 죄목으로 결국 당일 裴景도와 함께 참수형에 처해져 靑坡橋에 사흘 동안 梟示되었다. 한편, 이희천의 妻子는 黑山島의 官奴婢가 되기에 이르렀다.⁵⁾ 한 달여 뒤인 6월 27일야 영조는 『明紀輯略』과 관련하여 내렸던 엄중한 처벌을 거두기로 결정하여 처벌받았던 역관들을 용서하고 구금중이던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영의정 金致仁의 진언으로 이희천의 妻子 역시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⁶⁾

이처럼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明紀輯略』 사건은, 그러나 영조 스스로도 사건 처리 불과 한 달 뒤 자신의 처사를 후회했을 정도로 형벌이 지나쳤던 측면이 있었다. 『綱鑑會纂』을 비롯하여 모든 綱鑑類 서책을 회수하라는 영을 내리자마자 “士夫中庶家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자수하는 이들이 잇달아 책이 尙書省에 쌓였다”고 할 만큼 『明紀輯略』類의 역사서를 소장하고 있던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⁷⁾ 중국의 최신 서적을 구하는 데 힘을 기울인 서울의 수많은 사대부 중 한 사람에 불과했던 이희천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처형일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7월 29일 이희천의 伸冤이 이루어졌던 점 역시 영조의 처분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⁸⁾

그런데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박필순 역시 노론측의

- 4) 『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0일 및 21일조 참조. 『明紀輯略』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세 사신이 누구인지는 『實錄』과 『承政院日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5) 『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2일~26일조 및 『承政院日記』 영조 47년 신묘 5월 望後(『承政院日記』(73)), 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722~730면) 참조.
- 6) 『英祖實錄』 영조 47년 6월 27일조 참조.
- 7) “時士夫中庶家, 有此冊自現者, 相繼, 積於尙書省.”(『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3일조) 당시 자진하여 책을 헌납한 이들은 金致仁·韓翼謨·金相詰의 3정승을 비롯하여 洪啓禧·洪樂性·吳載純 등 무려 70여 명에 이른다(金允朝, 「燕巖의 〈李夢直哀辭〉에 대하여」, 262면; 『承政院日記』(73)), 730~731면 참조).
- 8) “七月二十九日, 以久早疏決, 汝亦蒙伸雪之恩. 聖教有曰: ‘其雖正法者, 既下教之後, 何累於後?’”(李運永, 「祭亡姪義天文」, 『玉局齋遺稿』 卷9, 장20앞, 韓山文獻 영인본)

인물이긴 하지만,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노론 계열의 인물들로 생각된다.⁹⁾ 반면, 辨誣를 위한 奏文을 짓는 등 영조의 의중에 부합하여 사건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南人인 蔡濟恭이었다. 영조는 『明紀輯略』 사건을 “오로지 나라 사람들이 時體를 힘쓰는 데 말미암은 폐단”¹⁰⁾이라 규정짓고 있거니와, 당시 호조판서였던 채제공 역시 “근래의 時體가 새로운 것에 힘을 써서 淸나라 사람의 文集이 나오기만 하면 모두들 한 번씩 보려고 한다”¹¹⁾며 당시의 세태를 꼬집고 있다. 영조와 채제공이 비판하던 당시 文風의 주도층은, 훗날 正祖의 文體反正으로 구체화되는 바와 같이, 역시 노론계열의 젊은 사대부들이었을 것이다. 영조는 이후 燕行에 참여하는 譯官의 수를 3분의 1 감하고 八包貿易까지도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淸나라로부터 일체의 新書를 구입해오지 못하게 하고 冊僮를 통한 서적의 매매도 엄금하도록 명하였다.¹²⁾ 영조의 이러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淸나라와의 公私貿易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譯官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燕行使節의 주역으로서 수시로 중국의 최신 서적과 문구류를 비롯한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역관들의 공사무역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이익을 취해왔을 노론측으로서도 이러한 처분이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¹³⁾ 그럼에도 『明紀輯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綱鑑類史書를 소장하고 있던 노론 집권층 인사들로서는 영조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명분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긴 하지만 『明紀輯略』 사건을 蕩平 추진을 위한 英祖의 ‘老論牽制策’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렵다. 사건 이후 특별한 政局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⁴⁾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조가 『明紀輯略』 사건을 기화로 삼아 燕行貿易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老論을 중심으로 한 서울 사대부들의 독서 성향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文風을 쇄신하겠노라는 명분을 내걸었

9)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3정승을 비롯한 노론측의 신하들은 『明紀輯略』이 正史가 아님을 들어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 했다. 게다가 5월 21일 입시켰던 三司의 관원들 역시 한결같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진노한 영조는 이들을 모두 削職하도록 명한 바 있다. 이들의 거개가 노론측 인사임은 물론이다.

10) 『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7일조.

11) 『英祖實錄』 영조 47년 6월 2일조.

12) 『英祖實錄』 영조 47년 5월 21일 및 23일조; 『承政院日記(73)』, 723~724면 참조.

13) 당시 영조는 八包貿易으로 국내의 은이 淸나라로 대량 유출되었던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품목은 사치품 일색이었던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명기집략』 사건 한 달 전에도 赴燕譯官의 수를 줄이고 使臣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교한 일이 있다(『英祖實錄』 영조 47년 4월 16일조 참조). 八包貿易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일조각, 1970), 100~107면; 柳承宙,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 - 17·8世紀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白山學報』 8, 白山學會, 1970), 346면 이하 참조.

14) 영조 47년 3월에 諮議로 있던 權震應이 증조부 權尙夏를 변호하다가 해직되고 權震應을 추천했던 李最中이 갑산부로 유배되었으며 鄭存謙이 刊版된 일이 있었다 하니(朴光用, 앞의 논문, 127면 참조), 당시 영조와 노론 일각 사이에 알력관계가 조성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이다.

던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明紀輯略』 사건이 훗날 正祖의 文體反正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이희천은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뜻밖의 억울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¹⁵⁾

III. 당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① 이희천은 1738년(영조 14) 8월 3일 서울 盤松池가에서 태어나 1771년 5월 불과 34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이희천은 문집에 2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주된 제재는 자연, 세속, 벗의 셋으로 집약된다. 자연 속에서 조화를 찾으려 하고 세속에 대해서는 괴리감을 넘어 강한 반감을 표출한다. 벗들과 함께 자연에서 노닐고 세속에 대한 비분강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벗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엿보인다. 자연 속에서 노니는 조화로움은 다음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다.

몸 한가롭고 마음은 일삼는 바 없어	身閑心無事,
때로 가장 높은 樓臺에 오르네.	時上最高臺.

15) 이희천을 잃고 난 슬픔을 글로 남겼던 인물로는 숙부인 玉局齋 李運永(1722~1794), 이희천 처형 당시 이조참의를 지냈던 大陵 洪樂純(1723~1782), 절친한 벗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세 사람이 확인된다. 옥국재는 「祭亡姪羲天文」에서 이희천의 죽음이 영조의 지나친 처사에 의한 ‘冤死’라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玉局齋遺稿』 卷9, 장20 참조). 옥국재가 이희천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억울해 했던가 하는 것은 당시 14세였던 이희천의 장남 이름을 ‘魯在’로 고치고 차남의 이름을 ‘愚在’라 지은 데서도 알 수 있다(이는 蘇東坡의 「洗兒戲作」 중 “我被聰明誤一生, 惟願孩兒愚且魯” 구절과 관련된다). 홍낙순은 이희천의 부친 이운영을 충심으로 따랐던 후배이며, 연암의 처숙부요 스승이었던 李亮天(1716~1755)과도 친밀한 교유가 있던 인물이다. 홍낙순이 이희천의 1주기를 맞아 지은 「祭李士春文」 중 다음 구절을 통하여 이운영 집안과의 각별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子之先人, 余之老友, 文章翰墨, 山水詩酒, 得意淋漓, 余唱汝酬, 豈無諸子, 與我最厚, 壺樓一閉, 絕絃不鼓, 幸有子賢, 克踵先美, 有詩斯和, 有文則評, 慰我後死, 賴此典刑, 今已失之, 奈余之窮!”(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大陵雜書』 卷5)

한편, 연암 박지원은 이희천이 죽은 지 3년 뒤인 1774년 「李夢直哀辭」(『燕巖集』 卷3)를 지으면서 그 附記를 통해 이희천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슬회한 바 있다. 박지원은 이희천의 돌연한 죽음 이후 모든 교우 관계를 끊어 버리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희천의 죽음을 야기했던 『明紀輯略』 사건은 박지원의 族祖 박필순의 상소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박필순에게 그 책을 빌려주었던 이는 바로 박지원의 三從兄인 錦城尉 朴明源(1725~1790)이었다(『英祖實錄』 47년 5월 20일조). 사건의 종결지점에는 이희천을 효시한 훈련대장 李章晉(1714~1781)이 있거니와, 이장오는 당시 박지원이 서울 三清洞에 세들어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이었고 이운영과도 교유가 있던 이였다(『過庭錄』 卷1; 박희명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31면 참조). 이러한 기이한 운명에 비추어, 金允朝 교수의 추정대로 이희천의 죽음은 박지원으로 하여금 과거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金允朝, 앞의 논문, 264~265면 참조).

남은 눈은 봄 지나 다 녹고	殘雪經春盡,
그윽한 꽃은 비 무릅쓰고 피었네.	幽花冒雨開.
깊은 숲에 괴이한 새 많고	林深多怪鳥,
험한 암벽엔 이끼 길게 자랐네.	壁峻長莓苔.
蘿軒酒 때마침 익으니	蘿軒酒正熟,
산 손님 거문고 안고 오네.	山客抱琴來. ¹⁶⁾

밤 늦은 시각 홀로 누각에 앉아 옛날 器物을 만지고 先人들의 글을 읽는 때 역시 이희천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순간이다.

은둔하는 데 하필 瀛海 동쪽이라?	遁世何須瀛海東?
초가집에서도 일마다 세속 인연 끊었네.	茅廬事事俗緣空.
늦은 밤 옛 器物 앞에 두고	古器偏臨人定後,
밝은 달 아래 기이한 글 읊조리네.	奇文多誦月明中. ¹⁷⁾

山林 속으로 멀리 은둔할 필요 무엇 있나?	何須遠遁山林下?
도시 안에 한가로이 거처함도 거리낄 것 없지.	不厭閒居市郭中.
흰한 대낮에 문 두드리는 俗客 없고	白日叩門無俗客,
서늘한 밤에 방으로 찾아드는 건 맑은 바람뿐.	涼宵入室有清風.
세속의 거마 오가는 곳 지척이건만	咫尺紅塵車馬處,
한 번 웃으며 '倚枕翁'이라 자칭하네.	一笑自稱倚枕翁. ¹⁸⁾

이희천이 거처하던 누각 '石樓'는 부친의 집이 있던 서울 盤松池(西池: 서대문 밖에 있던 못)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숙부 李運永은 앞서 살핀 제문에서 이런 말을 남긴 바 있다.

오래도록 차마 萬石之樓를 열어 볼 수 없었으니, 서적이나 古器가 후손에게는 참으로 家寶가 되겠지만, 아아! 이 물건이 우리 집안에 재앙을 끼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너를 문고 성으로 돌아와 書樓에 있는 牙籤이니 緗帙이니 옛날의 酒器며 술 따위를 모두 흠어 버리려 한다. 아아! 너는 돌아가 이 뜻을 우리 형님께 전해 다오.¹⁹⁾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萬石之樓', 즉 石樓에는 옛날의 器物들과 방대한 서적이 소장

16) 「山中卽事」, 『石樓遺稿』 乾卷, 장1앞. 「石樓遺稿」 원본에는 張 표시가 없으나 편의상 차례대로 卷別 張數를 매겼다.

17) 「遺興」, 『石樓遺稿』 乾卷, 장16앞.

18) 「漫詠二首」, 『石樓遺稿』 乾卷, 장40앞.

19) “不忍開萬石之樓, 書籍也, 古器也, 在後孫, 固是青氈, 而吁嗟! 此物災吾之家, 吾不欲留之, 埋汝還城, 樓中之牙籤, 緗帙, 尊彝, 鼎彝, 吾將散之而去之. 嗚呼此意, 汝其歸告吾伯氏.” (李運永, 「祭亡姪羲天文」, 장20뒤~21앞)

되어 있었으며,²⁰⁾ 이 소장품들의 대개는 부친 이운영이 공들여 모아 두었던 것이다. 이운영은 이 귀중한 물건들이 이희천의 운명을 재촉한 재앙의 근원이라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만,²¹⁾ 당시까지의 이희천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던 부친의 소중한 유품이었을 것이다.

② 여기서 이희천의 부친 이운영에게로 잠시 논의의 초점을 돌려 보자. 이운영은 英祖 때의 학자·서화가로, 부친은 丹陽府使를 지낸 李箕重이다. 『周易』에 밝았고 篆書와 隸書에 능했으며 산수와 인물을 잘 그렸다고 하고 문집 『丹陵遺稿』에 여러 편의 빼어난 山水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并世才彥錄』에 의하면, 이운영은 李麟祥(1710~1760)·吳瓚(1717~1751)·金尙默(1726~?) 등과 같은 당대의 명망 높던 선비들과 文會를 이루었는데, 이 모임의 중심에 있던 이가 바로 이운영이었다.²²⁾

이운영은 老論 闕閱家의 일원이었으면서 평생을 과거에 응하지 않고 處士로 지냈다. 이운영이나 그 절친한 벗이었던 凌壺觀 李麟祥의 글 중에는 당대를 末世로 규정하고 道가 쇠미해져간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자주 보이는바,²³⁾ 그러한 생각의 근원에는 '辛壬土禍'가 놓여 있다.²⁴⁾ 辛壬土禍로 賜死되었던 '老論 4大臣'을 伸冤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少論 일파를 처단해야 한다는 노론측의 이른바 '辛壬義理'가 英祖 즉위초부터 내내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1735년(영조 11) 이운영의 仲父인 三山 李台重(1694~1756)은 持平을 지내던 중 '老論 4大臣'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黨論만을 일삼는다는 탄핵을 받아 嶺南도에 圍籬安置된다.²⁵⁾ 이후 군수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던, 이운영의 부친 李箕重은 벼슬을 그만두게

20) 「萬石子」라는 이희천의 別號는 樓閣에 1만여 점의 壽石이 있었던 데서 붙은 이름이다. 「樓中有石萬數, 鑿錫嘉名.」(「萬石樓上樑文」, 『石樓遺稿』 坤卷, 장26뒤)

21) 李奎象(1727~1799)의 『并世才彥錄』에도 다음의 구절이 보인다. 「李胤永의 집에는 옛 물건이 많이 수장되어 있었는데, 특히 藍田의 옥은 상스러운 빛이 아롱져 눈이 부셨다. 그의 아들 이희천이 죄를 지어 효수당했으나, 세상에서는 수장하고 있던 옛 물건이 빌미가 되어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들 한다.」(李斯文家, 多蓄古物, 又有藍田玉, 瑞靄碎目. 其子羲天, 以眚棄市, 世傳古物爲祟云. 李奎象, 『靈怪錄』, 『并世才彥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222면의 번역을 참조하여 새로 옮겼다.)

22) 李奎象, 『并世才彥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앞의 책, 76면 참조.

23) 특히 李麟祥의 『凌壺集』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몇 구절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哀時忽慟泣, 前夜復醉嘔.」(「西齋檢書有感次金伯愚長韻」, 『凌壺集』 卷2, 장29뒤); 「慨時而閔俗, 深念友朋之義日薄而文道之分岐.」(「金良哉相肱遺書識」, 『凌壺集』 卷4, 장7앞); 「同歸古道, 濯礪衰俗, 是在韋布.」(「祭李胤永之文己卯」, 『凌壺集』 卷4, 장27)

24) 주지하다시피 「신임사회」란 신축년(景宗 1, 1721)과 그 이듬해인 임인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간에 일어났던 당쟁으로, 그 결과 金呂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의 노론 4대신 이하 노론 일파가 극형을 당하면서 실각하고 소론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었다. 소론의 입장에서는 '辛壬獄事'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일조각, 1988), 69면 이하; 朴光用, 「朝鮮後期『蕩平』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의 제2장 참조.

25) 『英祖實錄』 영조 11년 4월 24일 및 25일조 참조. 5년 뒤인 영조 16년(1740) 5월 이태중은 또다시 신임

되며, 이윤영 역시 완전히 벼슬길을 단념하고 처사의 길을 결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⁶⁾ 당시의 정황은 이희천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을묘년(1735), 尙書 從大父[李台重]께서 상소하여 忠冤을 아뢰셨으나 임금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흑산도로 유배가셨다. 이때 조부[李箕重]께서 齋戒하시고 곧장 沁州에 이르러 길에서나마 인사드리려 했으나 만나볼 수 없었다. 조부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다.

“벼슬로 말미암아 인사조차 할 수 없으니, 이런 벼슬을 내 무엇하러 할 것인가!”

이에 벼슬을 버리시고 늘상 강개하여 비감에 잠길 때면 약주를 드시고 취하시면 반드시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다.²⁷⁾

당시 정국에 대해 부친 이윤영 세대가 가졌던 반감은 이희천과 박지원을 비롯한 한 세대 아래의 老論清流 선비들에게로 이어진다. 이희천과 박지원의 교유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이희천은 1756년경 박지원이 부친 이윤영에게 『周易』을 배우던 일을 인연 삼아 교유관계를 맺게 된다.²⁸⁾ 당시 19세의 이희천은 東溟 鄭斗卿이 노닐었다는 서울 東溟池 부근에 거처하고 있었다.²⁹⁾ 박지원과 이희천이 金履素·黃昇源·韓文洪·李弘儒·洪文泳 등 10여 명의 젊은 선비들과 함께 北漢山 奉元寺 등지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³⁰⁾ 이렇게 맺어진 교우 관계가 평생토록 이어졌던 것인데, 그로부터 2년 뒤 두 사람이 함께 白岳山(北岳山) 동쪽 기슭의 大隱巖에서 노닐며 唱酬했던 일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문집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박지원이 지은 「大隱巖唱酬詩序」와 이희천이 지은 「和白麓詩序」가 그것이다. 「和白麓詩序」에 의하면, 韓文洪이 거처하던 大隱巖에 박지원과 이희천, 이희천의 당숙들인 李壽永·李舒永이 방문하여 詩會를 벌였던 것인데,³¹⁾ 다섯 사람

의리를 내세워 당시 영의정이던 李光佐를 파직할 것을 주청하다가 甲山府에 유배되었다(『英祖實錄』 영조 16년 5월 11일 및 19일조 참조). 한편, 이윤영의知己였던 吳瓚은 영조 27년(1751) 李光佐·趙泰億의 관작을 追奪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三水府로 귀양가서 죽었다(『英祖實錄』 27년 5월 18일 및 7월 5일條; 李麟祥, 『素華辭』, 『凌壺集』 卷4 참조). 노론의 주장대로 ‘신임의리’가 완전히 관철된 것은 1755년의 ‘乙亥獄事’에 이르러서이다(朴光用, 앞의 논문, 45~48면 참조).

26) 이윤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京男,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14~25면 참조.

27) “歲乙卯, 尙書從大父, 上書言忠冤, 不明, 乃謫于黑山. 時王大人爲齋, 卽直沁州, 欲辭于道, 而不及焉. 乃歎曰: ‘是由官而不及辭矣, 余奚爲是官哉!’ 乃棄之, 常慷慨, 憂愁, 輒飲酒, 酒酣, 必太息出涕.”(『黑山』, 『石樓遺稿』 坤卷, 장51)

28) 『過庭錄』 卷1의 다음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講『易』于丹陵李處士胤永之室. 李公聞先君所論奧義, 必擊案歎賞, 以爲: ‘發前人所未發也. 可與讀『易』者, 世復有幾人乎? 許爲忘年之交, 使其胤子羲天從遊焉.’” 『과정록』 권1의 기사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바, 박지원이 李胤永·黃景源·金元行 등의 학자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던 이 시기는 1756년으로 추정된다.

29) 『東溟池記』, 『石樓遺稿』 坤卷, 장8앞~9뒤 참조.

30) 朴宗采, 『過庭錄』 卷1; 박희병 옮김, 앞의 책, 24면 참조.

이 수창한 시를 묶어 詩卷을 만들면서 이희천과 함께 서문을 붙인 또 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었다. 박지원은 「大隱巖唱酬詩序」에서 大隱巖이 그 옛날 빼어난 시인으로 이름 높았던 南袞과 그 친구 朴闇이 노닐던 곳이었음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아아! 두 사람[朴闇과 南袞]이 여기서 노닐던 때 그 의기의 성대함이란 정말 어떠했겠는가? 한 켓 마시고 크게 취해서는 속마음을 토로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탄식할 적에, 그 기세는 산악을 무너뜨릴 만하고 그 변론은 강줄기를 탁 트이게 할 만하였을 것이다. 천고의 역사를 논하며 어찌 군자와 소인의 분변을 엄중하게 하지 않았겠는가?³²⁾

大隱巖 모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을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박지원과 이희천을 비롯한 20대 초반의 이들 다섯 사람은 앞 세대인 이윤영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러했듯, 당세의 현실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년 전인 1755년의 '乙亥獄事' 이후 '신임의리'가 관철되었다고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노론의 당파적 의리에 투철했던 박지원으로서는 영조의 탕평정치와 이에 동조함으로써 權貴化해갔던 一群의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던 터였다.³³⁾ 박지원은 大隱巖에서 우정을 다지며 현실에 비분강개했던 朴闇과 南袞 두 사람이 이후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며, 임금에게 直諫하다 목숨을 잃었으나 후세인들이 그 자취를 연모하고 있는 朴闇과, 己卯士禍를 일으켰다가 임종시에 자신의 글을 모두 불태워야 했던 南袞의 운명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날의 모임에 엄중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박지원과 이희천 세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분명 이윤영 세대의 그것과는 달랐다. 乙亥獄事(1755)로 '신임의리'가 완전히 관철되면서 적어도 이희천 세대에게는 과거에 응해 벼슬길에 나아갈 만한 명분이 주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벗들과 함께 과거를 준비했고 몇 차례 응시하여 낙방을 경험했으면서도,³⁴⁾ 과거에 대한 이희천의 생각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名利가 세상을 시끄럽히매
聖道는 날로 가라앉았네.
蘇秦·張儀의 부귀만 아니

31) “戊寅冬，元禮入大隱壘而居焉。月日，美仲與余堂叔父及族叔父，卜夜而遊焉。”(「和白麓詩序」, 『石樓遺稿』 坤卷, 장4앞)

32) “嗚呼! 當二子之遊於此也，其意氣之盛，顧何如哉? 劇飲大醉，兩相吐露，握手歎歔，氣可以崩山岳，辯可以決河漢，尙論千古，顧何嘗不嚴於君子小人之辨哉?”(『燕巖集』 卷3, 장4뒤~5앞)

33) 박지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金明昊, 앞의 논문, 48~52면 참조. 박지원과 이희천의 확고한 당파적 입장은 尤庵 宋時烈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에서도 확인된다. 박지원의 「貂裘記」(『燕巖集』 卷3, 장7앞~8앞)와 이희천의 「尤菴大字跋」(『石樓遺稿』 坤卷, 장16뒤~17뒤)이 그 예가 된다.

34) “余晚而治應學文，甚不力也，連不得志於有司，亦未嘗戚戚于中。”(「雲華壇記」, 『石樓遺稿』 坤卷, 장11앞)

顏淵·原憲의 安貧이야 누가 귀히 여길꼬?

(…) 어찌 훈풍을 일으켜

세상의 迷蒙 깨울 수 있을까?

남산에 흰 구름 있으니

돌아가 淸眞을 보존코저.³⁵⁾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雜著’ 중의 「應舉」라는 글에도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과거 응시자는 용꿈을 꾸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과거 응시자들은 벽에 용을 그려 놓고 용꿈 꾸기를 바란다고 하니, 이는 오직 이익만 중히 여기고 제 몸은 천하게 여기는 짓이다. (…) 이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부귀를 바램이 극심하니, 이처럼 심하게 회구한다면 벼슬을 구함에 장차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즉 스스로 허망함을 취하는 자들이야 본디 꾸짓을 가치도 없다마는, 치욕만을 섬기는 자 필시 행동함에 꺼리는 일이 없을 터이다. (…) 슬프다! 벼슬을 얻은 자 일찍이 이렷고 아직 언지 못한 자 역시 이려하니, 어린 아이라 해서 어찌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백성은 초췌하여 끝내 편안함을 얻을 수 없구나. 슬프다, 슬프도다!³⁶⁾

이희천은 과거 응시자들의 해괴한 습속을 통해 당시 집권자들의 세대를 통렬히 공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그 자신의 가난과 외로움이다.

낙엽진 사립문 황량하니

석 달 동안 人跡이 끊겼네.

서울 천만 사람들

기왓장 모양 나를 버렸네.

(…) 가난한 살림에 恒業도 없어

저물도록 끼니 잇지 못했네.

(…) 高官덕 으리으리 높은 담벽

푸른 기와 이어진 大路,

하인들은 비단옷 입고

살진 말은 마굿간에서 우네.

근심과 괴로움 백성에게 있나니

내 슬픔은 적다 하겠지.³⁷⁾

35) “名利喧世路，聖道日沉淪。但知儀、秦富，誰貴淵、憲貧？(…) 安得扇薰風，覺此洪濛辰？南山有白雲，歸去保淸眞。”(「讀論語干祿章，廢卷而歎吟」, 『石樓遺稿』乾卷, 장21뒤)

36) “世稱應舉者，夢龍焉，能得志，乃圖龍于壁，以冀其夢焉。是惟重其利，而賤其身者矣。(…) 乃如是者，其希富貴，甚矣。希之甚焉，則求之將無所不爲也。然則其自取於虛妄者，固何足誅哉？事之僂辱者，必不憚而行之也矣。(…) 悲夫！彼得之者，嘗如是焉；不得者，亦如是焉。凡爲孩提之兒者，安得而不如是哉？民之憔悴者，終不得而安矣。悲夫悲夫！”(「應舉」, 『石樓遺稿』坤卷, 장49뒤~장50앞)

37) “落葉柴門荒，三月無人跡。京洛千萬人，棄我如瓦石。(…) 家貧無恒業，日仄猶未食。(…) 卿相甲第高，碧

세상의 고관대작들이 벌이는 행태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던 청년 이희천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듯 자신의 불우에 대한 슬픔과 부패한 집권자들을 향한 분노, 피폐한 백성들에 대한 동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③ 당시의 세대에 대해 느끼는 괴리감과 외로움이 커갈수록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소수의 벗들에 대한 애착은 점점 강해졌다. 이희천과 교유하던 동년배의 벗들은 친가쪽과 처가쪽, 부친을 통해 맺어진 관계의 세 부류로 나뉘는데, 친가쪽 인물 중 교유가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은 ‘九堂叔’으로 일컬어지는 李舒永(1736~1800)과 6촌 형제 李羲文(1740~1808)이요,³⁸⁾ 처가쪽 인물로는 처남인 金履鏞(1732~1788)·金履鎬(1741~1800) 형제와 이들의 族侄 金在淳(1733~1818)이 이희천과 가까웠다.³⁹⁾ 그 밖의 벗들은 대개 부친 이윤영이 맺었던 교유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들로 모두 老論 名家의 자제들이다. 박지원과 함께 吳載紹·吳允常·韓箕鎭·韓文洪·黃基厚·李秉模 등을 대표적 인물로 들 수 있다.⁴⁰⁾ 이희천은 이들 중 이서영·이희문·이병모·오재순·한문홍과 자주 文會를 벌였으며, 특히 후배 이병모의 제의로 ‘詩盟’을 맺어, 죽기 한 해 전인 1773년에는 이병모·이서영·이희문과 함께 시집을 엮기도 했다.⁴¹⁾

瓦連阡陌. 強僕衣錦鏞, 肥馬鳴槽漚. 愁苦有細民, 謂余少憂感.”(「余不才無友朋之相愛者, 幸聖思[金履鎬의 字]不棄之, 乃深相結焉, 其五年而追隨, 有嶺海之分離, 及其歸, 欲同居焉, 竟未之成也, 其幽鬱之思, 宜之于詩」, 『石樓遺稿』 乾卷, 장17앞~18앞)

38) 李台重의 손자인 李羲文(字 士觀)은 훗날 富平府使를 지냈던 인물로, 젊은 시절 연암과 과거공부를 함께 했다는 기사가 『過庭錄』에 실려 있기도 하다(朴宗采, 『過庭錄』 卷1; 박희병 옮김, 앞의 책, 24면 참조).

39) 이들 중 특히 이희천이 평생의 知己로 삼았던 인물은 金履鎬였다. 김이호는 곧 金範行의 4남으로, 이희천에게는 손아래 妻男이 된다. 「余不才無友朋之相愛者, 幸聖思不棄之, 乃深相結焉, 其五年而追隨, 有嶺海之分離, 及其歸, 欲同居焉, 竟未之成也, 其幽鬱之思, 宜之于詩」(『石樓遺稿』 乾卷, 장17앞)라는 긴 제목의 시를 통해 이희천과 김이호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김이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김이호를 직접 ‘知己’로 허여하는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又答聖思書」, 『石樓遺稿』 卮卷, 장39 참조). 한편 金在淳은 연암의 族叔인 朴師錫의 사위로, 近齋 朴胤源과 錦石 朴準源 형제에게는 매부가 되는 인물이다. 후술하듯 박지원·이희천과 자주 어울려 文會를 벌였으며, 이희천과는 椒井 등지에서 오랜 시일 함께 기거하며 공부했던 막역한 사이였다(「贈仲寬十四韻并序」, 『石樓遺稿』 乾卷, 장34 뒤 참조).

40) 吳載紹(1739~1811)는 吳瑗의 아들이요, 이윤영의 知己였던 吳瓚의 조카이다. 吳允常(1746~1783)은 吳載紹의 伯兄인 醇菴 吳載純(1727~1792)의 아들이다. 韓箕鎭과 韓文洪(1736~1792)은 叔侄 사이로, 특히 한문홍은 이희문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 연암과 함께 과거공부를 했던 인물이다. 黃基厚는 김재순의 처남 朴胤源과 동서지간이어서 김재순과도 인척이 된다.

41) “彛則李秉模의 字嘗爲詩盟, 余辭而不獲. 閱簡齋詩, 有‘詩盟聊可敵銅盤’之語, 故云.”(「與九堂叔. 士觀. 彛則, 唱廬字二十五疊」, 『石樓遺稿』 乾卷, 장48뒤) “堂叔少爲詩, 近與彛則游, 相得歡甚, 遂與唱酬篇什, 余與士觀, 從而和之.”(「唱酬錄序」, 『石樓遺稿』 坤卷, 장5앞) 이병모(1742~1806)는 훗날 영의정에까지 올라 이희천이 교유했던 문인 중 가장 현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회천이 벗들과 한자리에 모여 밤새 토론하고 시를 주고받던 일은 문집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聖思[金履鎬의 字]가 돌아가고 당숙은 돌아오지 않기에 쓸쓸히 홀로 앉아 무료해 하다가 뜨락으로 나오려니 초승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土觀[李義文의 字]의 서재에 들렀더니 마침 美仲[朴趾源의 字]이 이르렀기에 함께 옛날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돌아왔다. 10韻 排律로 ‘一鴈孤飛體’를 지어 美仲에게 주고 화답시를 구한다」라는 긴 제목의 시를 통해 이회천이 이회문의 서재에서 박지원과 함께 밤을 새워 토론하고 함께 시를 지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시는 외로움에 싸여 있다 벗을 만나 잠시의 기쁨을 나눈 뒤 다시 이별을 맞게 되는 과정이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회천은 서울 어느 곳에선가 당숙 이서영, 처남 김이호와 함께 공부했던 듯하다.⁴²⁾ 혼자 남게 되었던 重陽節에 이회천은 이회문의 서재를 방문하였고 마침 박지원이 찾아왔기에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5언 22구 중 일부만 들어 본다.

道心 내 스스로 다스린다만
 기이한 기운은 누가 알아줄까?
 옛 일 말할 땐 즐겁더니
 지금 일만 논하면 슬픔이 이네.
 그윽한 정에 함께 창밖으로 나서
 맑은 흥취로 시를 짓네.
 (...) 가을 소리 우는 물가의 기러기
 찬 빛 새벽 산의 자태.
 (...) 다리 곁에 이르러 이별하매
 손 잡고 다음 가약 묻는다.⁴³⁾

이들은 밤을 지새우며 옛 사람들의 자취를 이야기하고 함께 시를 짓다가 새벽녘이 되어 서야 헤어지며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지금 일만 논하면 슬픔이 이네”라고 말했듯, 이들은 이날 밤도 대은암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태에 대해 비분강개했을 것이다.

한편 「黃稗溫[黃基厚의 字] 맥에서 美仲·公履[韓箕鎭의 字]·仲寬[金在淳의 字]·元禮[韓文洪의 字]와 함께 거듭 ‘情’字를 얻어 시를 짓다」⁴⁴⁾라는 시는 이회천이 29세이던 1766년

42) 이회천은 오랜 기간 벗들과 한곳에 모여 글공부하는 일이 잦았다. 이회천은 오재소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으며(「出鍾巖與克卿讀書」, 「克卿先歸」), 겨울밤 한기진·김재순과 밤새워 함께 글을 읽다가 새벽녘이 되어 함께 시를 짓기도 했다(「冬夜, 與韓公履箕鎭, 仲寬, 達鷄而讀, 林雪山月, 上下其白, 於是披衣, 而出拈韻共賦」).

43) “道心吾自理, 奇氣竟誰知? 談古猶爲好, 論今輒作悲. 幽情同出牖, 清興共題詩. (...) 爍聲鳴鴈渚, 寒色曉山姿. (...) 橋頭分袂地, 握手問前期.”(「聖思歸, 堂叔不返, 孤坐沒趣, 步出庭際, 微月初升, 回訪土觀書貯, 朴趾源美仲適至, 與之談古, 達曙歸, 題十韻排律以一鴈孤飛體作, 贈美仲要和平」, 『石樓遺稿』乾卷, 장20뒤~21앞)

黃基厚의 집에서 박지원·한기진·한문홍·김재순과 함께 모여 차운시를 지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7일 후 이들은 다시 초정에 모여 文會를 열었으니,⁴⁵⁾ 당시 이희천이 황기후의 집이 있던 인왕산 아래의 椒井에 집을 빌어 거처하며 김재순·이희문 등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의 일로 생각된다.⁴⁶⁾ 이 두 작품에는 銀燭을 밝힌 채 밤새도록 흥금을 터놓고 高談峻論이 오갔던 당시의 흥겨웠던 모임이 잘 그려져 있다.⁴⁷⁾ 이희천과 박지원을 비롯한 20대의 老論清流 지식인들은 이처림 서울 근교에서 벗들과 함께 文會를 즐기는 한편, 당시 세대에 대한 비분강개를 공유함으로써 울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IV. 古文 수업과 野譚에의 관심

① 당대에 대한 이희천의 반감은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는 행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지만, 은둔하여 스스로를 수양하며 학문을 닦는 것 역시 그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희천은 두문불출하며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서적을 읽는 한편,⁴⁸⁾ 古文 수업에 마음을 붙였다.

부귀는 내 소관 아니니
기약할 수 없다지만,
文에 전력하여 문장 彬彬함이라면
옛사람 가히 좇을 수 있네.⁴⁹⁾

이때의 ‘옛사람’이란 구체적으로는 司馬遷을 가리키거니와,⁵⁰⁾ 이희천은 『史記』와 韓愈

44) 「黃叔樛溫(基厚)宅, 與美仲, 公履, 仲寬, 公履之侄元禮(文洪)守, 申得情字 - 丙戌」(『石樓遺稿』 乾卷, 장 33앞)

45) 이어지는 시 「越七日, 又會椒井」의 제목 아래에는 “그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고, 여기에 仲寬의 族 係인 金履運이 더 있었다. 마침내 각각 韻을 택하여 함께 시를 지었다”(前者畢集, 又增一人焉, 金履運 際休, 仲寬族係也, 遂各拈韻共賦)라는 기록이 있다(『石樓遺稿』 乾卷, 장33앞).

46) 「越七日, 又會椒井」에 이어지는 시 제목이 “椒井之居, 無園林之可以詩爲樂”으로 시작된다. 또 제목 중에 “因與公履, 仲寬, 拈韻而賦”라는 구절이 있어, 역시 초정에서 한기진·김재순과 함께 시를 지으며 노닐었음을 알 수 있다(『石樓遺稿』 乾卷, 장33뒤 참조). 또 「余不才無友朋之相愛者, 幸聖思不棄之, 乃深相結焉, 其五年而追隨, 有嶺海之分離, 及其歸, 欲同居焉, 竟未之成也, 其幽鬱之思, 宣之于詩」에는 “借屋椒水北”(乾卷, 장18앞)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昨冬讀于椒井, 與仲寬同隔歲一二日而罷, 既歸七八日, 復讀于士觀所, 修業之初, 宜有一言之記, 回拈韻而賦」(乾卷, 장30앞)를 통해서도 椒井 시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47) 「越七日, 又會椒井」중의 “開籩張銀燭”, “高談披心腹”, “樂莫斯夜遊” 구절이 이에 해당한다.

48) “杜門而讀吾書, 豈所樂之有在澹乎若無憂者耶?”(『雲華壇記』, 『石樓遺稿』 坤卷, 장11)

49) “富貴非我有, 置之不可期. 攻文文章彬, 古人猶可追.”(『讀書』, 『石樓遺稿』 乾卷, 장31앞)

50) 작품의 서두에서 “一篋太史書, 出壺樓何之? 我叔溪西廬, 三月深垂帷”(같은 글, 같은 먼)라고 했듯, 이

의 古文을 모범으로 삼아 문장 공부에 진력했는데, 이러한 고문 수업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일전에 제가 古文과 시 몇 편을 지어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있지요. 친척들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이름을 날리려 한다”고 말했고 벗들 역시 그렇게 말했으며, 심지어 아내와 젓먹이, 종들 까지도 모두 같은 말로 나무라는 듯 싶더군요. (...) 저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듯하여 제 속마음을 밝혀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⁵¹⁾

이희천에게 직접 심한 질책을 보냈던 이가 바로 8당숙 李耆永(1736~1800)이었다.⁵²⁾ 이희천이 이구영에게 보낸 長文의 편지에 저간의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구영은 이희천의 古文 수업을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자 하여 경박한 자제들과 더불어 한때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라 戒責”했던바, 이희천은 이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단지 겉만 보고 급히 시비를 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⁵³⁾ 이어서 이희천은 자신이 고문 공부를 하는 것은 “문장으로 인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고 人慾을 제압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立志의 大道에 나아가기”⁵⁴⁾ 위함이지, 경박한 이들이 문장으로 남의 이목을 속이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일이라 항변했다. 여기서 자세히 살필 겨를은 없지만 이구영의 비판을 반박하고 자신의 고문 수업을 옹호하는 이희천의 어조는 대단히 신랄하다. 이제 이희천의 항변은 세상의 道學者然하는 무리들에 대한 공박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聖人の 道를 배우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 걸핏하면 聖人을 칭하며 온종일 危坐하여 聖人の 책이 아니면 읽지 않는다지만, 그 마음인즉 반드시 이로 인하여 명성을 얻고, 명성으로 인하여 벼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대저 학문으로 인하여 명성을 구하는 것은 인심의 변화입니다. 인심의 변화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문장으로 인하여 道를 구하는 자가 없는 줄은 또 어찌 안단 말입니까?⁵⁵⁾

청년 이희천의 눈에는 處事를 자임하며 道學에 전념한다던 이들 역시 내심으로는 명성과 높은 벼슬을 원하는 위선자로 보였던 것이니, 당시의 권세가들은 물론 山林에게마저도 극

희천은 당시 溪西에 머물던 당숙 李舒永과 함께 석 달 동안 『史記』를 공부했다.

51) “僕嘗爲古文及詩騷各數篇，以示之人，親戚乃謂之‘求名’，朋友亦謂之‘求名’，以至于婦孺胥隸，咸謂之‘求名’，以爲之譏訕。 (...) 故僕如蒙不潔，欲明其所蘊，而不得焉。”(「又答聖思書」, 『石樓遺稿』 坤卷, 장 39)

52) 李耆永은 이구영과 가까웠던 金相肅의 만사위이기도 하다.

53) “執事嘗戒，小子學古文，欲名于世，與輕薄子弟，爭其一時之利，是執事未嘗知小子之心，徒取於外，而遽言其是非也。”(「上第八堂叔書」, 『石樓遺稿』 坤卷, 장 34 앞)

54) “必欲因文而得安心之術，克制其欲，乃養其神，以進於立志之大道矣。”(같은 글, 같은 편)

55) “今有人學聖人之道，言語百爲動稱聖人，窮日危坐，非聖人之書，不讀焉，其心則必欲因是而名，由名而官焉。 (...) 夫因學而求名者，人心之變矣。人心之變，無得而度焉，則又安知因文而求道者無之乎?”(같은 글, 장 34 뒤)

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으로 생각된다. 이희천은 이들과는 달리 古文을 배움으로써 道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정당함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는 “文으로 말미암아 道를 깨친다”(因文悟道)는 부친의 가르침 그대로이기도 하다.⁵⁶⁾

② 이희천의 고문 수업에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질책을 보냈던 데 반해 동반자 역할을 했던 이는 박지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0대의 이희천과 박지원은 앞서 살핀 대로 서울 근교에서 벗들과 함께 文會를 즐기는 한편 편지를 통해 서로의 문학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희천이 박지원에게 보냈던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어 그 대체적인 사정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일찍이 제가 古文을 지을 때마다 질정을 구하면, 足下[박지원]께서는 그때마다 꼭 글 짓는 법을 도적을 사로잡는 데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要害處를 얻어 쇠사슬 하나로 제압하면 족하거늘, 긴 동아줄과 굵은 고삐로 온 몸을 칭칭 감아 무엇하겠소?”

우둔한 저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승복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繁과 約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도적을 잡기는 매일반이외다. 要害는 또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⁵⁷⁾

위 인용을 통해, 이희천이 자신이 지은 古文을 그때그때 박지원에게 보내 평을 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이희천의 문장이 번다함[繁]을 지적했던 것인데, 이희천은 처음에는 박지원의 지적에 승복하지 않다가 의심을 품고 韓愈의 글을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박지원의 뜻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했다.⁵⁸⁾ 韓愈의 古文으로부터 문장 짓는 법의 비유를 끌어오고 역시 韓愈의 고문을 되풀이 음미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청년기 이들의 고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된다.

이희천은 자신의 문장이 번다하고 산만한 데 반해 박지원의 문장은 簡約하여 법도가 있음을 장수의 用兵에 비유하며 칭찬했다.⁵⁹⁾ 그러나 이희천이 깨달았다는 妙處의 내용은 박

56) ‘因文悟道’로 요약되는 이운영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朴京男, 앞의 논문, 25~34면 참조.

57) “僕嘗爲古文，輒質之，足下必譬之捕賊曰：‘苟得其要害之地，以一鐵鎖，足矣，安用其長緬大繩，以縛之一身哉？’僕愚鈍，莫喻其旨，嘗不服曰：‘繁與約，雖不同矣，捕賊一也，亦安用要害爲哉？’”(『與朴美仲趾源書』, 『石樓遺稿』坤卷, 장40)

58) “然常疑而不敢釋念，足下讀韓氏書，而嘗引之是喻，僕亦讀焉。早夜而求其所謂要害者，蒼蒼也，明明也，果天與日之正色耶？今而後，僕始撥其雲而得覩焉。”(같은 글, 같은 면)

59) “儘乎其樂也，有如狹斜之間，不意而遇累歲之逋寇，不勞而擒之也。重複浮衍，散漫而無紀，反誤於李廣之治兵者，豈非僕之文乎？排列有法，不遺尺寸，自得於程不識之治兵者，豈非足下之文乎？繁約之勢，誠有所不同也。”(같은 글, 같은 면) 박지원이 문장 짓기를 도적 잡는 데 비유하고 이희천이 다시 이를 받

지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要害處에도 깊고 얕음과 크고 작음의 나뉘미가 있더군요. 만일 그 깊고 큰 것을 얻었다면 가벼운 터럭 하나로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니 쇠사슬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러므로 繁約만을 알고 大體에 이르지 못한 자는 족하와 저인 것이니 우리 두 사람은 작은 성취에 안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한즉 오직 韓退之의 글을 더 읽어야만이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족하께서 저희 집에 들러 주신다면 함께 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 참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文字로 명성을 흠치는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 두 사람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할 것입니다.⁶⁰⁾

앞에서 박지원은 이회천 문장의 ‘繁’에 대해 ‘約’을 강조하며 ‘要害處’를 잡아 제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회천은 韓愈의 글을 되풀이 읽는 가운데 要害處 자체에도 大小深淺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要害處의 大小深淺이란 이회천이 문장으로 인해 깨치겠다던 道의 大小深淺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본다면 이회천은 문장을 짓는 관건은 道의 大體를 잡는 데 있으며, 繁約의 분변은 그보다는 하위에 속하는 방법상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요해처의 대체를 잡은 마당에야 박지원이 ‘約’의 비유로 삼은 ‘쇠사슬’도 지나치게 번다하다는 것이 이회천 反論의 요지이다. 繁約만을 알 뿐 大體에 이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로 작은 성취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이회천의 어조는 자못 의기양양하기까지 하다. 이회천은 함께 韓愈의 古文을 공부하자고 제의하면서 “文字로 명성을 흠치는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 두 사람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호기로운 말로 편지를 맺고 있다. 당대의 문장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眼識을 갖춘 이로는 박지원과 자신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대단한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회천의 자부심 강한 성격, 문장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③ 이회천이 古文 공부에 힘썼던 또다른 이유는 앞서 살핀 「上第八堂叔書」에 드러나 있다. 여기서 이회천은 古文을 쫓아 비유하며 자신이 古文을 짓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가 고문을 배움은 옛사람들이 쫓아 배우던 일과 같습니다. 쫓아라는 것은 邪心을 금제하므로 옛날의 군자들도 일찍이 연주했던 것이지요. 제가 고문을 지어 마음을 안정시킨다면, 쫓아 견주어 봄도 역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옛날 嵇康이 한밤중에 쫓아를 쫓다가 귀신이 와서 들자 등불을 끄고 누워서 “부끄럽게도 귀신과 더불어 빛을 다투었구나!”라고 말했다지요. (...)

아 용병술에 비유하던 것이 훗날 박지원의 「驪壇赤幟引」(『燕巖集』 卷1, 장29앞~30앞)에 이르러 한층 풍성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

60) “然要害之地，有淺深小大之分焉。苟得其深且大者，則一髮之微，亦足以制之矣，又安用鐵鎖爲哉？(...) 故徒知其繁約，而莫就其大者，足下與僕，咸安於小成而已也。然則惟益讀韓氏書，乃有所就焉。足下幸過僕矣，欲與之同其業焉。(...) 誠如是，凡世之盜名於文字者，亦莫逃吾二人矣。”(같은 글, 장40뒤~41뒤)

저라면 필사 등불을 밝히고 짚을 타며 귀신으로 하여금 그 幽鬱한 뜻과 분개한 소리를 듣게 하여 두려워하는 바 있게 했을 것입니다.⁶¹⁾

이희천은 문장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幽鬱憤慨한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걸맞는 글들이 '雜著'에 여러 편 실려 있는데,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對諫者」·「序籤」·「村野記見」·「應舉」 등의 작품이 위정자에 대한 비판과 기롱의 뜻을 담고 있는 글이라면, 「記聞」·「射美人」·「欺奇之奇」는 野譚에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앞 계열의 작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問答假設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對諫者」와 「序籤」이다. 「對諫者」의 힐난자는 이희천이 石樓의 서적과 기물을 관리하고 청소를 담당하는 執事 세 사람을 너무 아끼는 탓에 저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일을 소홀히 하리라고 충고한다. 이에 대한 이희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요즈음 사람들 중에 예의를 차리며 늙어가고 대대로 다른 이에게 몸을 맡긴 이들이 있지. 그들은 위의를 갖추고 편안히 앉아 일을 주관하며 걸핏하면 천금의 상이 있으며, 일찍이 독서를 업으로 삼아 능히 선악의 나뉘를 알면서도 느끼는 바가 없어, 그 직분을 손상시키고 정사를 해치며 남의 식욕을 도적질할 뿐이요, 수십 년 동안 위태로움을 보면서도 구하지 않고 어지러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며 오직 제 몸 이롭게 하기에만 넉넉히 힘을 쏟더군. 그대는 장차 이들을 어찌 하려는가? 필사 멀리 변방으로 내쫓으려 할 것 아닌가? 저 세 사람의 執事야 이에 비한다면 참으로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들을 賢者라 부른다 해도 오히려 해로울 것이 없지 않은가?⁶²⁾

당대의 위정자들에 대한 통렬한 공박이 아닐 수 없다. 「序籤」에 이르면 비판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진다. 이 작품은 韓愈의 「進學解」를 본받아 가상의 문답을 설정하고 하인의 입을 빌어 당시의 혼탁한 세태를 엄중히 꾸짖고 있다. 하인은 이희천에게 宋나라 欽宗이 악한 생각이 일면 검은 콩을, 선한 생각이 일면 노란 콩을 뜨락에 던져 마음을 다스렸다는 고사를 본따 대나무로 만든 五色의 제비[籤]를 만들어 바치며 그 사용법을 일러 주었다. 근심스러울 땐 黑色을, 즐거울 땐 紅色을, 下問할 일이 있을 땐 青色을, 무료하게 홀로 있고자 할 땐 白色을,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없어 질정하여 행하려 할 때에는 黃色을 하인에게 내보이면, 하인이 그 의중을 헤아리고 때와 쓰임에 맞추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희

61) “小子之學古文，若古人之學琴焉。夫琴者，禁其邪心，故古之君子，嘗御焉。小子著其文，以安其心慮焉，則其比之於琴，不亦宜乎？(…)昔嵇叔夜，嘗中夜而琴，有鬼物聽焉，乃滅燭而寢，曰：‘恥與魑魅爭光矣！’(…)小子則必欲張其燭而鼓其琴，使鬼物聽其幽鬱之旨，憤慨之音，有所懼焉。”(「上第八堂叔書」，『石樓遺稿』坤卷，장35뒤~36뒤)

62) “今有人老於禮義之俗，世世委身于人，其義嚴安坐，而主其事，動有千金之賞，營業於書，能知善惡之分，而不能感焉，隕其職，害其政，竊人之食，數十歲，視其危而不救，知其亂而不治，穰穰焉惟務利於其身焉，則子將若之何哉？必欲放之遠裔而乃已耶？彼三人者，比之於是，尙何罪？雖謂之賢者，抑無害乎？”(「對諫者」，『石樓遺稿』坤卷，장42)

천이 이를 시험해 보고 그 효용에 탄복하자, 하인은 이야말로 오늘날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만한 법이라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한다.

대저 公卿大夫들이란 재물을 거두고자 부유한 백성을 부르고, 방백과 절도사, 수령 등의 벼슬 아치들은 취렴하고자 백성을 매질하며, 세도가 자제들은 그 父兄을 빙자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니 마음 속에 뭔가 도모하는 것이 있는 것입지요. 卿大夫는 명예를 얻고 총애를 공고히 하고자 날만 저물면 서로 맞아들이고, 남의 선물에 마음이 움직인 자는 따뜻한 말을 하여 그 뜻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승진을 구하는 자는 많은 재물을 들어 세도가를 찾아가고, 청요직을 사하고자 하는 자와 문장에 능한 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布衣 선비는 王公貴人の 종노릇을 하며 녹을 구합니다. 과거에 응하는 자들은 要路에 통하기를 구하여 卿大夫를 찾고, 명성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 글을 들고 날마다 선배들을 찾아가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 이런 이들이 서로 모여 언약할 때 아무이무 제비를 꺼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 응할 수 있습지요. 황색 제비를 내보이면 그 뜻을 알 것이요, 홍색 제비를 내보이면 그가 기뻐함을 알 것이요, 흑색 제비를 내보이면 그가 꾸미는 것을 알 것인즉 말하지 않고도 그 뜻이 자명할 것이요, 힘들이지 않고도 그가 하고자 하는 바에 응할 수 있답니다.⁶³⁾

하인의 이같은 대담한 발언에 놀란 이희천은 “아서라!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라고 말하면서도, 청색과 황색 제비의 쓰임새를 물어 하인의 남은 말을 듣고자 한다.⁶⁴⁾ 이에 대한 하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 두 가지(청색과 황색 제비)를 정말 쓸 수 있다면 이는 곧 三代의 세상일 터, 어찌 오늘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公卿大夫로부터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현명하다고 뽐내며 마음을 속이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니, 막혀서 통할 수 없고 어그러져 파탄에 이르며 그 실마리에 끝이 없습니다. 대저 物에 문채가 없음을 사람들이 즐긴 적이 없으므로 사치를 숭상하고 풍속이 경박해져 신중하고 성실한 이들은 헐뜯음을 당하고 경박하고 약삭빠른 이들은 기림을 받지요. 교묘하게 남에게 영합하기를 잘하면 賢者가 되고, 오활하여 말하는 데 능하지 못하면 鄙夫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죄악에 빠지고 혼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⁶⁵⁾

63) “夫公卿大夫，欲躡幣而呼富民焉；方伯，節度及守令之官，欲聚斂而撻于民；勢家子弟，藉其父兄，欲奪人之貨，乃謀其腹心焉。卿大夫，欲迭譽而固其寵，乃暮夜而相邀焉；感人之饋者，用溫言，欲悅其志；求遷者，內貨萬萬，而謁于形勢之門；欲沽清要之職者，與士之能文者，周旋于巷市之間；布衣之士，奴事于王公貴人，以求一命之祿焉；應試者，求通關節，而謁于卿大夫；求名者，持其文，日謁于先進，欲得其先後焉。(...) 若相會而約焉，出某籤而示焉，則知其有某事而應焉。黃者出而知其旨，紅者出而知其悅，黑者出而知其謀焉，則不言而其志自明，不勞而其欲自應。”(「序籤」, 『石樓遺稿』坤卷, 장44뒤~45앞)

64) “余乃悚然曰：‘止! 是不欲聞焉。然青者，白者，固無所用耶?’”(같은 글, 장45앞)

65) “是二者，苟用焉，則是猶三代之世矣，豈可謂今之世耶? 自公卿大夫，達于士庶人，矜己自賢，以欺厥心，耻於下問，故窒而不能通，壞戾頗沛，厥緒靡終。夫物之無文，人未嘗樂焉。故侈靡乃尚，厥俗澆漓，謹毅者多毀，輕儇者多譽，便巧而善合人，則爲賢者，踈迂而不能言，則爲鄙夫，故舉世穰穰，陷於罪戾，迷而不能反。”(같은 글, 장45)

천한 신분의 지체로운 인물로 하여금 상층 집단의 천박한 탐욕과 우매를 기롱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가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가상문답의 설정에서부터 위험천만한 발상이 느껴진다. 이희천의 위정자에 대한 반감과 당시 세태에 대한 환멸은 이토록 극심하였으며 그 표출 방식 또한 이처럼 수시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것이었다.⁶⁶⁾

④ 한편 이희천은 20대의 박지원이 『放孺閣外傳』을 지었던 것처럼 野譚 계열의 작품을 지으면서 자신의 울울한 심사를 달랬던 것으로 생각된다. ‘雜著’의 마지막에 실린 네 편이 이에 해당한다.

네 편 중 맨 앞에 놓인 「記聞」에는 두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앞의 이야기는 權生이라는 자가 同學 朴生의 처를 빼앗고자 박생을 죽이고 급기야는 박생의 아내마저 살해하고 진상을 은폐했던 사건을 10여년 후 새로 부임한 太守가 冤鬼가 된 박생 아내를 만나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뒤의 이야기는 患原 선비의 마부가 天上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골간으로 삼아 당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아 본 작품이다. 이어서 실린 「射美人」은 洪啓灌이 林生의 애첩이 妖僧의 둔갑임을 알고 林生을 살린 이야기이며, 「欺奇之奇」는 名醫 舟村을 속여 아내의 병을 고친 선비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記聞」의 두번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본다.

「記聞」의 두번째 이야기는 患原의 선비의 꿈에 軍官 한 사람이 홀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軍官이 말을 빌리러 왔다고 하자, 선비는 “말의 성질이 사나워 우리 집의 마부 한 사람만이 이 말을 몰 수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다. 軍官은 마부가 이미 돌아왔다며 7일 후 말을 돌려보내겠노라 약속하고 떠난다. 꿈에서 깬 선비가 마굿간을 열어 보자 말은 죽어 있었고, 전날 밤 늦게 돌아왔던 마부 역시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 선비는 마부의 아내에게 시신을 얹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 명하는데, 7일 뒤 홀연 말이 깨어났고, 마부 역시 일어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선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리라 하자 마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날 소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밤이 이미 깊어 나으리께서 이미 주무시는 듯하기에 감히 인사를 여쭙지 못했습지요. 불을 끄고 잠시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소인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나가 보니, 그 사람은 의관이 매우 위엄이 있어 경외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언덕 위에 서서 말에 안장을 채우게 하기에, 소인은 이렇게 말했습지요.

“주인 나으리의 명을 듣지 못했는데, 감히 제 마음대로 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66) 훗날 이희천이 吏曹參判에 追贈되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집을 정식으로 간행하지 못했던 사정 역시 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희천은 아내 安束 金氏(1738~1824)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두 아들 중 장남 魯在(1758~1820)는 1789년(正祖 13) 생원시에 급제하여 훗날 淸州牧使를 지냈다. 이희천 처형 당시 7세였던 차남 愚在(1765~1831)는 1804년(純祖 4) 문과에 장원급제한 이래로 순탄한 벼슬길에 올라 성균관 대사성·대사간·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덕분에 이희천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 사람이 눈을 부릅뜨며 “긴 말 할 것 없다!”고 말하기에 소인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붙고 나섰습니다요.⁶⁷⁾

작품의 전반부는 이처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도록 재미있는 필치로 그려져 있다. 전반부의 서술은 『天倪錄』에 실린 「孟道人携遊和詩」의 도입부를 떠올리게 하거니와,⁶⁸⁾ 부친 이윤영의 절친한 벗이었던 任邁(1711~1779)가 『天倪錄』의 저자 任墜의 손자이며 그 자신 『雜記古談』이라는 야담집을 남겼음을 고려할 때, 이희천이 보인 야담에의 관심 역시 이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⁹⁾

이제 軍官을 따라 이른 곳에는 “옥으로 지은 성이 우뚝하고 금빛 대궐이 휘황하여 눈이 부셨으며, 난새와 학을 탄 사람들이 오갔다.” 군관이 성 안으로 들어가자 마부는 말을 묶고 밖에서 5일 동안을 기다려야 했다. 발은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6일째 되던 날 군관이 나오기에 마부가 사정을 따져 묻자, 군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여기는 上帝께서 사시는 곳이다. 만일 이곳의 불건을 네게 내렸더라면, 너는 영영 이곳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느니라. 내 그동안의 일을 말해 주리라. 상제께서는 나로 하여금 世道の 善惡을 살피게 하시어 내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기를, 「世道の 흥폐함이 극악하여 그 사정을 다 아낼 수 없을 지경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상제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풍속을 바꿀 수 있겠느냐?’

‘10년간 전쟁이 지속된다면 인간들의 자손이 없으리니 어찌 풍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0년 동안 역질이 돈다면 풍속을 고칠 수 있겠느냐?’

‘역질의 해는 전쟁보다 심하오니, 어찌 풍속을 고칠 수 있으리이까?’

‘10년 기근이면 道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10년 기근이 들면 流民들이 서로 잡아먹으며 흥폐한 지경에 이를 것인즉 더욱 사태가 악화될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면 어느 곳이든 도적의 환란이 없을 것이요, 땅에 떨어진 불건을 줍지 않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아 순박한 풍속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

67) “小人某日歸家，夜已深，公公就寢，故未敢入見。少臥燈下，似夢非夢之間，有人連叫小人之名。小人出視，某人衣冠甚偉，令人敬畏，立於岸上，趣使韃馬。小人曰：‘不聞公公之言，豈敢擅自韃馬？’某人張目曰：‘勿多言！’小人不得已韃馬而出。”(『記聞』, 『石樓遺稿』坤卷, 장55뒤)

68) “庚戌二月初七日夕，余往近隣，爲主人所過飲爛醉，乘昏仍往下里所親家，過司圃署後墟落，忽逢黑衣人，自路右出，欣然握余左手，曰：‘吾與君有共遊處。’余疑其非人逡巡，而却強爲提挈，力大不能脫。”(任墜, 『孟道人携遊和詩』, 『天倪錄』, 『朝鮮學報』91, 1979, 152면) 같은 내용의 작품이 安鼎福의 『雜同散異』에는 「黑衣人傳」(一名 孟學士傳)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69) 「蘭齋會者凡十四人，以‘桃花流水杳然去，別有天地非人間’分韻，得天字」(『石樓遺稿』乾卷, 장7뒤)는 이희천이 任邁의 齋室인 蘭齋를 방문하여 함께 모였던 여러 사람들과 시를 지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다.’”⁷⁰⁾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5일이 지나서야 상제의 허락을 받게 되었노라며 군관이 마부와 말을 돌려보내는 데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記聞’이라는 제목은 이 작품이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기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상제와 군관의 문답에서 역시 이회천의 作意가 느껴진다. 군관은 이회천의 평소 생각과 부합하게도 당시 世道의 흥패함이 극악하여 그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상제에게 보고하였다. 10년 풍년이 들게 하여 순박한 풍속을 회복시키겠다는 한 발짝 물러선 절말보다는 풍속 진작의 방도를 둘러싼 상제와 군관의 논란을 통해 당시 세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데 이회천의 의도가 놓여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강한 의론 성향의 야담을 통해서도 이회천은 당대를 향한 비판과 풍자의 강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⁷¹⁾

IV. 맺음말

필자가 이회천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박지원의 「李夢直哀辭」를 읽으며 받았던 강한 인상 때문이었다. 박지원이 자신의 애뜻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그 운명에 대해 것처럼 강렬한 울분을 품었던 이회천이란 이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이 글은 출발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회천은 노론 명문가의 후예로서 불우한 삶을 살다가 불의의 禁書事件에 휘말려 때이른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소수의 벗들 외에 그가 당대에 대한 울분과 환멸을 토로할 수 있었던 대상은 문학뿐이었다. 이회천의 문학에서 가장 뚜렷이 느낄 수 있던 것은 혼탁한 세대에 대한 환멸과 당대의 위정자들에 대한 지독한 반감이었다. 청년기의 박지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古文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사람으로 이회천과 같은 文友도 드물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회천의 생각대로 훗날 박지원이 한 시대를 풍미한 대문장가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문장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했던 이회천이 때이른 죽음을 맞게 된 것은 여러 모로 불행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회천의

70) “汝以此何地? 乃上帝之所居也. 若以此地東西賜汝, 則汝永爲此地人, 不得出世之故耳. 且余好教爾前後之事. 上帝使我探察世道之善惡, 我探察一回, 入奏曰: ‘世道之凶悖極惡, 不可盡狀.’ 帝曰: ‘若十歲兵禍, 則可以移風否?’ 吾對曰: ‘十歲兵禍, 則人無孑遺, 何以移風?’ 曰: ‘十歲瘟疫, 則可以易俗否?’ 曰: ‘瘟疫之害人, 甚於兵禍, 何以易俗?’ 曰: ‘十歲饑饉, 則可就於有道否?’ 曰: ‘惡乎! 可饑饉, 則流民相食, 入於凶悖之域, 更加一轉矣. 若大有年十歲, 則山行海宿, 無強人之患, 道不捨遺, 夜不關扉, 可復於淳朴之風矣.’”(『記聞』, 『石樓遺稿』 坤卷, 장56)

71) 반면 나머지 세 편은 이야기 자체의 흥미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 작품들이기에, 작품 말미에 따로 논평을 두어 安分 등의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石樓遺稿』 坤卷, 장54뒤, 장57뒤~58앞, 장59앞 참조).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가운데, 이회천을 둘러싸고 있던 18세기 후반 老論 清流 지식인들의 당대 인식 중 일면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연암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박지원과 그 후배 세대의 몇몇 인물들에게로만 집중되었던 지금까지의 관심이 이회천을 비롯한 동세대 인물들에게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18세기 초·중반의 精神史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윤영을 비롯한 이들의 선배 세대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룰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탐색을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